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중국집에도 지역성이 있다

몇 해 전이던가, 코로나도 들기 전의 시절이다. 광주에 불일이 있어서 송정역에 내렸는데, 지하철에 김밥 프랜차이즈 광고가 크게 붙어 있었다. 이 도시를 찾는 외지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호남에 가면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의 절반쯤이 늘 가득 차곤 한다. 점심과 저녁은 어디서 맛있게 먹을까, 혼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기대감에 부풀다. 더러는 비판적 생각도 한다. 호남이라고 어디서 재료를 가져 가져오진 않을 텐데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저렇게 해서도 남을까. 어찌 됐거나 음식에 대한 상념이 치솟는 곳이 호남이다.

내게는 특히. 그런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김밥 프랜차이즈 광고가 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복잡해졌던 것이다. 하기가 김밥 같은 '패스트푸드'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기획과 광고, 일관된 조리법 등이 미더운 구석도 있을 터. 어쩌면 이 맛의 도시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는 일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내 끼니를 저기서 때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렇다. 나는 그날 저녁, 도회를 걷다가 그 김밥집에서 한 덩어리 김밥을 먹었다. 저녁에, 그것도 술도 아니고 밥만 먹자고 들어갈 만한 식당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 데다가 여기저기 요란스레 찾아다니는 성정은 아니어서 마땅한 집을 못 찾은 까닭이었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상당히 억울하게 털어놓곤 하는데, 어찌 됐든 광주에서 저녁으로 프랜차이즈 김밥은 아니지 않아? 하는 미련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고, 논의해 보자면 참 할 말이 많은 일이기도 하다.

전국 어디든 제각기 다 맛을 내세우는 시대다.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과 다른 방식의 음식문화를 가진 곳이 요새 인기가 높아졌다. 이걸 음식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순대에 찜잔 안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더니?" "튀김에 상추도 안 주더라니?" "간짜장에 계란프라이 안 주는 건 또 어땠고?" 서울에서 흔하게 듣는 지역 출신 친구들의 얘기다. 듣다 보면 너무도 재밌다. 이 작은 땅, 두어 시간이면 안 달는 곳이 없어서 심지어 기차에 짐대칸 식당 칸도 없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생생히 숨 쉬는 지역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중국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지역성과 중식당을 말해 보고 싶다. 먼저 짬뽕. 육교기가 들어가는 짬뽕은 고전적인 것인데, 서울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성행하고 있다. 본디 이런 짬뽕은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군산이 짬뽕도시로 뜬 이유 중의 하나는 고기를 넣는 이른바 '육짬뽕' 덕이었다고 한다. 타지인에게 특이하게 보였고 맛도 진해서였을 것이다. 짬뽕에 식초 뿌려 먹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는 부산과 익산, 전주 쪽인 것 같다. 물론 거의 노인 한정이다. 짜장면에 고춧가루도 이젠 거의 안 뿌리는 시대니까.

예전에 광주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무를 넣어 주었다. 너무도 신기해서 주방장에게 여쭙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채소가 연중 나오지 않아서 계절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넣다 보니 무도 들어갔다고 증언한다. 요즘처럼 저장성 좋은 양파를 늘 구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반찬 날 때 대파와 교대로 내고, 더러는 양배추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중국집에서도 김치를 내주는 동네는 단연 호남이고, 그 질도 제일 좋다고 나는 단연한

다. 강진에서는 묵은지까지 주는 집도 봤다.

중국집은 뻥한 메뉴 같지만, 세부적인 스타일이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 부산의 계란프라이 같은 게 그런 예인데, 호남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술을 주문하면 짜장을 안주로 내준다. 원래 술이란 살비 개념이 있어서, 한 병을 시키면 안주가 따라 나오는 문화가 꽤 오래 존속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그 시절 풍습으로 중국집에서조차 짜장이라도 깔아 주는 게 아니었던지. 더러는 짬뽕 국물을 내주기도 한다. 볶음밥을 시키지 않았는데 술안주라고 하라고.

대구의 중국집은 유독 전기밥을 파는 집이 많고 짬뽕 두를 '전교스'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교스는 교자(餃子)라는 뜻이다. 물론 대구에서는 야키우동이 라고 호칭하는, 국물이 적은 볶음식 짬뽕도 유명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한 가지다. 특정 지역은 아니고 대개 작은 소읍이나 면소재지의 일반적 풍습인데, 한식과 중식을 같이 파는 집이 많다는 것이다. 이 또한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다.

지방은 또 비교적 도시에서조차 저녁에 일찍 닫거나 점심 장사만 하는 집이 많아졌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집에서 저녁 요리를 즐길 연구도, 문화도 사라져 가고 있다는 표시일 게다.

지역성이 열어지는 세상이다. 그래도 아직은 중국집에서조차 지방마다 다른 풍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자기 고장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지키는 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알고는 있어도, 서울식에 다 뒤섞여 버리면 사라져 없어지는 걸 어쩌나 싶지만.

<음식 칼럼리스트>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의원 원장

수년 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난소암을 앓다 숨진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예방' 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 유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흔히 암의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도 가족력이 무엇인지 문진을 하곤 한다.

이때 유전력과 가족력의 정의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유전력은 특정 유전자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암이 대물림되는 경우로 안젤리나 졸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가족력은 이러한 유전적 요인에 생활 습관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까지 통틀어 정의한다. 의학적으로는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혹은 사촌 이내에서 같은 질환을 앓은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촌

암 가족력

의 암 발생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아서 흔히 3대 직계 가족 위주로 암 발생 여부를 물어 가족력을 파악한다.

암 가족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스웨덴과 독일 암 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이다. 스웨덴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직계 가족력과 암 발생 위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신의 암 발생 위험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서 1.8~2.9배, 형제자매가 암에 걸린 경우는 2.0~3.1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에 걸린 경우는 3.3~12.7배가 높았다.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한 것은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가 암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수치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암은 직계 가족 3대에서 한 명만 발생해도 가족력으로 보고 정기 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암 외 가족력이 인정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치매 등이 있다. 이중 고혈압은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하다. 당뇨병은 서양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당뇨병이면 자녀의 발병률을 15~20%, 부모 모두이면 30~40%로 본다. 또 부모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이면 자녀도 노년기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 가족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위암은

가족력만 있는 사람의 암 발생 위험은 2.9배지만 가족력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5.3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4.9배 발병 위험이 크다. 대장암은 부모가 대장암 환자일 경우 본인이 걸릴 확률 3~4배 이상 증가하며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이 2배 가량 높아졌다. 어머니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난소암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난소암 가족력도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난소암은 임신·출산 경험이 많거나 모유 수유를 오래 하는 무배란 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폐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다. 가족력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흡연자는 40세 이전부터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매년 한 번씩 찍어야 한다. 일반적인 흉부 X-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8배 높으므로 가족력이 있으면 보통 50세부터 받는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 담낭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담석이 생기면 예방적으로 담낭을 절제하기도 하는데 담낭 절제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담낭암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기고



백학순 김대중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전 세종연구소장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인공이자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헌신하고 실천해온 민주주의, 인권, 용서와 화해, 평화의 높은 뜻을 기리고 김대중 평화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 '김대중평화회의' (The Kim Dae-jung Peace Forum) 창립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2021년 김대중평화회의'는 10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7~28일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국제평화회의의 개막식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이끌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사나니 구스망 전 티모르-레스테(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축사 혹은 기조연설을 하고, 전 세계 석학들,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김대중평화회의의 의의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존엄과 연대, 상상과 공존을 중시한 지도자였다. 김 대통령은

'김대중평화회의'의 창립을 고향

항상 보편적 인류 가치를 중심으로 평화를 염원했고, 용서와 화해에 기반한 보편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항상 세계 평화의 지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세계 평화와 사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 지구와 자연에 대한 생명권을 중시한 지도자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로부터 넓은 만델라, 빌리 브란트와 함께 20세기 세계를 대표하는 평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다.

김대중평화회의의 창설의 목적은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실현에 평생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주의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21년 김대중평화회의의 대주제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하여'이다. 오늘 인류는 역사 이래 최고로 발달한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인류와 지구는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그중에서도 '가진 자' 중심의 탐욕 문명으로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어머니 지구가 파괴되어 죽어가고, 계속되는 각종 질병 바이러스, 기후변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으로 매년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또 빈곤과 전쟁으로 수십억 명의 인류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평화회의는 인류와 지구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화해와 용서, 평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2021년 김대중평화회의는 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생존권과 자연의 생명권 보장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김대중평화회의의 일정과 내용을 보면, 전야제 문화행사 후에 제1일에는 '화해와 연대'에 대한 기조연

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평화와 화해의 세계 지도자(김대중, 만델라, 브란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제2일에는 '빈곤, 불평등, 질병, 인류'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팬데믹과 생명 및 환경, 청년과 미래 및 평화, 세계의 대표적인 지역과 마을의 화해와 치유 등의 경험들을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대중 평화회의의 창립회의의 평화선언'이 채택될 것이다.

2021년 김대중평화회의는 국제평화회의와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축제로 진행된다. 이미 사전 작업으로서 전 국민 '평화의 미소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국민들이 보내온 '평화의 미소' 사진과 동영상은 10월 26일 전야제에서 방영될 것이다. 전야 문화행사의 중심 아이디어는 '평화의 오디세이'이다. 평화의 오디세이는 김대중 평화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라남도에서 힘차게 돛을 올리며 전 세계를 향해 출발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의 평화정신을 담은 한류와 전통문화에 기반한 공연들이 이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신(新)강강술래 대합창이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중평화회의가 세계적 평화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낳은 호남은 물론 우리나라, 우리 민족,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지역과 나라 사랑을 넘어서는 넓은 세계관 속에서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세계 시민, 세계 지도자로서의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 호남은 물론 전 국민, 전 지구촌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이리저리 찢겨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구와 인류가 김대중 평화주의 정신으로 생명과 평화, 희망의 꽃을 함께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社說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그제 부산을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오월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 민심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25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권력유에 사로잡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은 윤 후보가 군부독재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5·18 피해자와 가족들, 상식이 있는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광주 영령과 호남인 눈물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과 오월단

체들 역시 성명을 내고 '호남 평행'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마저도 윤 전 총장의 역사 인식을 잇따라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전 씨에 대한 '비호'를 넘어 '찬양'으로까지 들린다. 이 때문에 그의 친박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씨 일당이 자행한 광주 학살의 상처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 기간에 호남은 정치적 탄압에 더해 경제적 차별까지 받으며 낙후에 허덕여야 했다. 더욱이 전 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고도 여태껏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 씨의 지적을 인정하는 호남인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다. 윤 전 총장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광주와 호남인 그리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다.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대책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집의 CCTV 가운데 85%가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목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086개 중 81.3%인 2만8526개가 5년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1003개의 CCTV 중 2015년 설치가 832개, 2016년 21개 등 총 853개로 5년 전 설치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전남 역시 1052개의 CCTV 중 2015년 852개, 2016년 48개로 5년 전에 설치된

CCTV가 총 900개(85.5%)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CCTV는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카메라와 녹화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가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 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됐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사용 기한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따라서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제화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역시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만화영화 '개구쟁이 스퍼프'에서 악당 기가벨과 고양이 이즈라엘이 등장할 때면 들려오는 음악이 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중 1악장이다.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슈베르트는 이 곡을 '미완성'으로 남겨 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 보통 4악장인 교향곡과 달리, 이 작품은 2악장으로 마무리된다. 워낙 아름다운 곡이라 2악장만으로도 '완성'된 느낌이지만 훗날 여러 작곡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기도 했다.

모차르트는 1791년 '레퀴엠 D단조(K. 626)'를 쓰던 중 세상을 떠났다. 영화 '아마데우

을 남기지 못하고 떠난 작곡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들이 곡을 완성했다면 어떤 음악이 됐을까. 요즘의 애호가들은 금급중이 될 수밖에 없고, 아쉬움도 든다.

얼마 전 베토벤의 교향곡 10번 '교향곡 10번' 연주회가 열렸다. 9번 교향곡 '합창'의 성공 후 10번 작곡에 들어간 베토벤은 단편적인 음악 스케치 몇 개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10번 교향곡은 음악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엔 연주된 10번 교향곡은 인공지능을 이용

해 완성했다고 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작곡가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팀을 꾸려

18개월 만에 3악장과 4악장을 만든 것이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완성 교향곡'이나 '레퀴엠' 등 또 다른 미완성곡들도 인공지능 버전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겠다. 독일 연주회를 두고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은 역사의 한 조각'이라 평했던 한 프로그래머의 말처럼, 완성된 곡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만은 분명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